

카타르를 둘러싼 외교갈등 장기화와 경제적 영향

이권형 구미·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 연구위원(khlee@kiep.go.kr, Tel: 044-414-1073)

손성현 구미·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 전문연구원(shson@kiep.go.kr, Tel: 044-414-1266)

장윤희 구미·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 연구원(yhjang@kiep.go.kr, Tel: 044-414-1330)

유광호 구미·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 연구원(khryou@kiep.go.kr, Tel: 044-414-1165)

차 례

1. 카타르 외교갈등의 배경 및 장기화 가능성
2. 카타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리스크 요인
3. 한·카타르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 및 리스크 요인
4. 시사점 및 대응방안

주요 내용

- ▶ 2017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주요 아랍 국가들이 카타르와의 외교관계 단절을 전격 선언한 이후, 당사국들이 모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역내 외교갈등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번 외교갈등의 근본적인 배경은 카타르의 독자적인 외교 행보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불만과 함께 아랍 국가들의 대(對)이란 견제외식 고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임.
 - 카타르는 아랍 4개국이 제시한 외교정상화 선결조건을 거부하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아랍권 국가들 역시 선결조건 수용 외에는 타협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이번 외교갈등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 카타르 경제는 전반적으로 거시경제 측면에서 안정을 되찾고 있으나, 외교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카타르 상업은행의 유동성 위축, 건설 부문의 투자 부진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카타르에 대한 단교 선언 이후 주변국의 대카타르 봉쇄조치로 실물 부문에서는 일시적인 소비자물가 증가율 상승, 수입 감소가 나타났으며, 금융 부문에서는 주가 하락, 선물환 급등, 비거주자의 예금 인출 등과 같은 영향이 있었음.
 - 이번 외교갈등이 장기화된다면 상업은행은 유동성 위축, 건설 부문은 투자 부진을 겪을 수 있으며, 이것은 카타르의 장기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 또한 외교갈등 장기화는 한국기업의 카타르 내 건설비용 상승 및 공사 지연, 대카타르 투자 위축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외교갈등 장기화로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등을 통한 자재 및 장비 조달이 어려워지면 카타르에 진출한 한국 건설기업의 비용 상승과 공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대카타르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이집트 등의 국경봉쇄로 지역 내 물류 및 인적 이동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한국기업의 카타르 진출 추진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
- ▶ 한·카타르 경제협력관계는 단기적으로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역내 외교갈등 장기화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파악하여 현지 공관, 코트라 및 현지 기업간 정보공유체제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외교갈등으로 인해 해외건설사업, 에너지 수급, 물류 부문 등에서 한국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 즉각적인 정부간 대화 및 협상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 및 대화 채널 구축이 필요함.
 - 그러나 가스전 개발, 제조업 시설 확충, 물류산업 육성 등 카타르 경제구조의 개선에 필요한 새로운 협력 수요를 개발하여 한·카타르 경협을 강화하는 노력도 함께 취할 필요가 있음.

1. 카타르 외교갈등의 배경 및 장기화 가능성

가. 개요

■ 2017년 6월 5일 사우디아라비아가 카타르와의 단교를 전격 선언한 이후, 주요 아랍 국가들이 잇따라 단교 대열에 합류함에 따라 역내 정세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음.

- 카타르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한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총 12개국이며, 이 중 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이집트 4개국은 단교 발표 직후 카타르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하고, 카타르 선박과 항공기의 자국 영해 및 영공 통과를 금지하였음(표 1 참고).
- 아울러 카타르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은 자국민의 카타르 여행과 체류, 경유를 모두 금지하고, 자국에 거주하고 있는 카타르 국적자도 14일 안에 출국할 것을 명령함.
-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내전에 개입 중인 수니파 국가 연합군에서 카타르군을 제외하겠다고 발표하며 카타르와의 군사적 협력관계도 단절함.
- 한편 니제르, 요르단, 지부티, 차드는 카타르와의 외교관계를 격하하였으며, 터키, 쿠웨이트 등은 단교사태 해결을 위한 양측의 중재 역할을 자처함.

표 1. 카타르 외교갈등 관련 주요 국가들의 입장

구분		국가
외교관계 단절(12개국)		UAE, 리비아(동부 정부), 모리타니, 몰디브,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소말릴랜드, 에리트레아, 예멘, 이집트, 코모로
외교관계 격하(4개국)		니제르, 요르단, 지부티, 차드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 촉구	역내	모로코, 소말리아, 수단, 알제리, 이란, 쿠웨이트, 터키, 튀니지, 파키스탄
	역외	EU, 독일, 러시아, 미국, 영국, 이탈리아, 중국, 프랑스

자료: 저자 작성.

■ 사태 발발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이집트 4개국은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한 선결조건을 두 차례에 걸쳐 카타르 측에 제시하였으나, 카타르가 전면 거부 및 자강 외교를 선언함에 따라 역내 경색 국면이 유지되고 있음.

- 2017년 6월 22일 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이집트 4개국은 13대 항목으로 구성된 선결조건을 카타르 측에 전달하였으나, 카타르가 이를 전면 거부하였음(표 2 참고).
- 이에 해당 4개국은 7월 18일에 선결조건을 6대 항목으로 축소(이른바 대테러 6대 원칙)하여 카타르 측에

다시 제시, 협상의 여지를 넓혔지만, 카타르 정부는 ‘아랍 4개국에 위협하고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있다’며 이를 비판함(표 3 참고).

- 카타르가 6대 항목으로 축소한 선결조건에 대해서도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해당 4개국은 카타르 측에 13대 선결조건 수용에 대해 재차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임.

표 2.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한 13대 선결조건

- 1) 이란과의 외교관계 단절, 군사교류 중단, 무역거래 제한
- 2) 카타르 내 건설 중인 터키 군사기지 즉각 폐쇄와 터키와의 군사협력 중단
- 3)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바레인에 의해 테러단체(무슬림형제단, ISIS, 알카에다, 헤즈볼라 등)로 지정된 그룹과의 단절
- 4) 상기 4개국과 미국에 의해 테러리스트로 지정된 개인이나 그룹, 기관에 경제적 지원 중단
- 5) 상기 4개국에 의해 수배중인 테러 인사 본국 인도와 자산 동결, 자금 출처 및 거주지에 대한 정보 제공
- 6) 알자지라 방송국 및 산하 기관 폐쇄
- 7) 상기 4개국 출신 인사들에 대한 카타르 시민권 부여 금지 및 내정 문제에 대한 간섭 중단
- 8) 최근 카타르의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상기 4개국의 금전 손해 및 인명 손실에 대한 보상
- 9) 아랍 및 걸프 지역 국가들과의 군사, 정치, 사회, 경제 정책 공조
- 10) 상기 4개국 반정부 인사들과의 접촉 금지
- 11) 미들이스트아이, 알자지드와 같이 카타르의 직간접적인 자금 지원을 받는 언론사 폐쇄
- 12) 상기 요구사항에 대한 동의(10일 내)
- 13) 상기 요구사항에 대해 첫해는 매달, 이듬해는 매분기, 이후 10년간 감시에 대한 동의

자료: Al-Jazeera(2017. 7. 12), "Arab States issue 13 demands to end Qatar-Gulf crisis".

표 3.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한 6대 선결조건

- 1) 극단주의 및 테러단체에 대처, 자금 및 은신처 제공 금지
- 2) 증오와 폭력을 야기하는 모든 종류의 행동 중단
- 3) 2013·2014 리야드 협정 준수
- 4) 2017년 5월 개최된 이슬람·미국 정상회의 결과 준수
- 5) 내정 간섭과 불법단체 지원 금지
- 6) 테러리즘에 대처하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

자료: Al-Jazeera(2017. 7. 20), "Qatar faults disorganized conduct by Saudi-led group."

■ 미국, 프랑스, 쿠웨이트, 터키 등의 주요 인사들은 갈등 당사국을 직접 방문하여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셰이크 사바 알 아흐마드 알 사바(Sheikh Sabah Al-Ahmad Al-Sabah) 쿠웨이트 국왕(6월 5~7일), 랙스 킬러슨(Rax Wayne Tillerson) 미 국무장관(7월 10~14일), 장이브 르드리앙(Jean-Yves Le Drian) 프랑스 외무장관(7월 15~16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터키 대통령(7월 23~24일) 등이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갈등 당사국을 방문하였음.

나. 배경

■ [해킹으로 인한 카타르 관영통신사의 오보] 이번 외교갈등은 타미 빈 하마드 알 타니(Tamim bin Hamad Al-Thani) 카타르 국왕의 친(親)이란 성명이 카타르 관영통신사(QNA: Qatar National Agency)를 통해 송고되면서 촉발된 것으로 알려짐.

- 2017년 5월 23일 QNA는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을 이슬람 패권 국가(Islamic Power)라 칭하고, 이슬람 주의 무장정파인 하마스(Hamas)와 무슬림형제단(Islamist Muslim Brotherhood)을 두둔하는 카타르 국왕의 성명을 보도하였음.
- 해당 기사는 역내 큰 파문을 일으키며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수니파 왕정국가들간에 해묵은 갈등을 증폭시켰고, 이는 이번 외교갈등의 단초가 되었음.
- 이에 카타르는 QNA 송고시스템이 해킹을 당해 국왕 명의의 '가짜 성명'이 배포되었다고 해명하였으나, 아랍 국가들은 카타르 측 해명을 인정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하였음.
- 한편 7월 17일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는 미 정보당국을 인용, UAE가 카타르 국왕의 친이란 허위 성명을 게재하기 위해 QNA를 해킹했다고 보도하였으며, 이후 7월 20일에는 카타르 정부도 본 해킹 사건 배후로 UAE를 공식 지목하였음.
- UAE는 즉각 해킹 개입설에 대해 부인하였고, 카타르 정부 대변인실은 국제법을 위반한 UAE의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음.

■ [독자적인 외교 노선에 대한 주변국의 불만] 보다 근본적인 배경 중의 하나는 카타르의 독자적인 외교 행보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불만이 오랜 기간에 걸쳐 쌓여왔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음.

- 카타르는 1995년 하마드 빈 칼리파 알 타니(Hamad bin Khalifa Al-Thani) 전 국왕 부임 이후 아랍세계의 대의명분보다는 국가 실리를 우선시하는 독자적 외교 행태를 나타냄.
- 카타르는 종교적으로 수니파 국가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역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시아파 종주국 이란과도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등 균형적인 외교 노선을 이어왔음.¹⁾
- 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이집트에 의해 테러 단체로 지정된 이슬람주의 정파 무슬림형제단에 대해서도 2011년 아랍의 봄 당시 공개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현재까지 직간접적인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 또한 이라크 전쟁 당시 반미 정책을 강조하던 다른 걸프 국가들과는 달리 미국과의 안보 협력에 중점을 두는 친서방 외교정책을 유지하였음.
-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전통적인 우방국과는 외교적으로 불편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이번 사태도 오랜 기간 누적되었던 주변 국가들의 불만이 한순간 폭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카타르는 과거 수차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주변 걸프 국가들과 외교갈등을 빚어왔으며, 특히 지난 2014

1) 카타르는 이란과의 외교관계가 경색될 경우 북부 가스전 개발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이란 핵문제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

년 3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3개국이 카타르의 2013 리야드 협정 불이행(무슬림형제단 지원)을 주장하며 카타르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한 바 있음.²⁾³⁾

- [이란의 부상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위기의식 고조] 또한 이번 외교갈등은 이란의 정치·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주변 아랍 국가들의 견제의식이 고조되면서 심화된 측면이 있음.
 - 2015년 7월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및 독일이 이란과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을 타결한 이후, 2016년 1월 국제사회의 對이란 경제제재가 해제됨.
 - 국제사회의 對이란 경제제재가 해제되자 이란의 경제적 부상 및 역내 패권 확대에 대해 우려하고 있던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 아랍 국가들의 위기의식이 고조됨.
 - 이란은 인구 8천만 명 규모의 거대한 내수시장과 풍부한 천연자원, 중동 최대의 제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큰 나라로 평가됨.

다. 장기화 가능성

- 카타르는 아랍 4개국의 선결조건을 거부하면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아랍권 국가들 역시 선결조건 수용 외에는 타협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이번 외교갈등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특히 아랍 4개국이 외교 정상화 조건으로 내세운 시리아와의 외교관계 단절, 터키와의 군사 협력 중단, 알자지라 방송국 및 지사 폐쇄 등은 카타르의 정체성 및 경제적 실리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카타르가 이를 쉽게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이번 사태의 중재 역할을 자처한 미국과 영국은 아랍 4개국이 카타르에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자제를 요구하였으나, 지난 7월 30일 사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4개국 외무장관은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13대 선결조건을 카타르가 먼저 수용해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태도를 명확히 함.
- 카타르는 주변 국가들의 봉쇄 조치에 어느 정도 대비되어 있고, 이란과 터키가 카타르를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카타르가 경제적 고립으로 인해 먼저 굴복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카타르가 봉쇄 조치에 맞대응하며 이번 사태를 장기 국면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데는 과거 주변 국가들과의 갈등 국면에 비해 경제적 위기 대응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임(표 4 참고).

2) GCC 각 회원국 정상은 2013년 11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이집트 군사정부의 안정을 지지하고, 다른 회원국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협정에 서명하였음.

3) 본 사태는 약 9개월 동안 지속되다가 2014년 12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GCC(Gulf Cooperation Council)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일단락되었음.

- 2016년 대형 컨테이너선이 정박할 수 있는 하마드 항구가 신설됨에 따라 식량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인프라 기반이 확대됨.
- 더불어 카타르는 최근 전력 기반시설을 확대하여 잉여 전력 생산능력을 갖추어 놓았고, 소규모 농장을 지속적으로 건설하여 자국산 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카타르는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육로 접경을 통해 수입하여온 생필품 및 식료품을 현재 이란과 터키에서 대체 공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카타르 국민이 생활난에 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카타르는 주변국의 통행 차단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해상 수송로를 도입하고, 80개국 국적자에 대한 입국비자 면제 조치를 발표하는 등 카타르 스스로가 외교갈등 장기화에 대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음.
- 2017년 7월 4일에는 향후 수입원 안정을 위해 2024년까지 자국의 LNG 생산량을 매년 30%씩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함.

표 4. 2014년 및 2017년 외교갈등 비교

	2014년 외교갈등	2017년 외교갈등
갈등 요인	- 카타르의 2013 리야드 협정 불이행 (무슬림형제단 지원)	- 카타르 국왕의 친이란 성명 및 카타르의 테러리즘 지원
주요 내용	- 2014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3개국이 카타르 주재 자국 대사 소환	- 2017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 포함 아랍권 12개국이 카타르와의 외교관계 단절 - 일부 국가는 자국민의 카타르 여행 및 거주를 금지하고, 선박 및 항공기 왕래 차단
결과	- 2014년 11월 3개국 대사 복귀 이후 같은 해 12월 개최된 GCC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일단락	- 경색 국면 지속

자료: 저자 작성.

■ 양측 합의에 따라 이번 사태가 일시적으로 봉합된다 하더라도 GCC 내부의 갈등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최근 오만과 카타르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수니파 결속에 동참하지 않고 있으며, 쿠웨이트도 상대적으로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 이번 외교갈등으로 인하여 GCC 국가간 연대가 더욱 약화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고, 사태가 일시적으로 봉합된다 하더라도 GCC 내부 균열이 장기간에 걸친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형성된 것인 만큼 결속력 약화 기조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오만, 카타르 등 사우디아라비아의 영향력 범위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아랍 국가들이 친이란 외교를 확대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의 역내 지위가 약화되면서 중동의 전체적인 역학관계가 재편될 수 있음.
- 2017년 8월 24일 카타르 외무부는 이란과의 외교관계 복원을 위해 2016년 1월 소환하였던 주이란 자국 대사를 조만간 이란에 복귀시키겠다고 밝힘.⁴⁾

4) 2016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가 시아파 고위 성직자 47명을 집단 처형한 이후, 주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에 대한 공격이 발생하였음. 이를

- 이번 사태가 2013년 왕위를 물려받은 타밈 빈 하마드 알 타니 카타르 국왕과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왕위 계승자로 지명된 무함마드 빈 살만(Muhammad bin Salman) 간의 대립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2013년 6월 25일 하마드 빈 칼리파 알 타니 카타르 전 국왕은 친자인 타밈 빈 하마드 알 타니에게 왕권을 전격 이양함.
- 2017년 6월 21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빈 압둘아지즈(Salman bin Abdulaziz) 국왕이 자신의 아들인 무함마드 빈 살만을 제1 왕위 계승자로 책봉하였음.
- 무함마드 빈 살만은 예멘 내전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개입을 확대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이란 견제정책을 주도하는 등 강경 보수정책을 주장해옴.
- 이번 외교갈등이 전 국왕의 뒤를 이어 자국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카타르 국왕과 친정체제 구축과 승계 구도 안정화를 위해 카타르를 굴복시키려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간의 대립 양상으로 번질 수 있으며, 경합 구도가 지속되면 외교갈등의 해결점을 상당기간 찾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

2. 카타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리스크 요인

가. 카타르의 경제적 특징

- 카타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천연가스를 수출하면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왔음.
- 카타르 경제는 1971년 건국 이후 석유를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나 적은 생산량과 그 부침으로 인해 1990년대 중반에 경제성장의 주동력원은 천연가스로 넘어가게 되었음.
- 카타르의 석유 생산량은 1973년 일일 57만 배럴이었으나, 1980년대 중반에는 32만 배럴로 감소하였음. 1995년 기준 일일 46만 배럴로 회복한 뒤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6년에는 일일 189.9만 배럴을 기록하였음.⁵⁾
- 카타르는 1991년 북부 가스전을 개발하여 1996년부터 본격적인 수출에 나섰음. 이후 꾸준히 생산량을 늘려 미국, 이란에 이어 세계 3대 천연가스 생산국이 되었으며, 2016년에는 1억 6,312만 석유환산톤(tonnes oil equivalent, 17.5Bcf/d)을 생산하였음(그림 1 참고).⁶⁾
- 최근 저유가 기조로 LNG 가격이 하락하면서 카타르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음.
- 2015년 기준 석유 및 천연가스 부문은 카타르 GDP의 50.0%, 재정 수입의 81.8%, 수출의 79.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⁷⁾

발미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과 단교하였고, 이에 동참하여 UAE, 쿠웨이트, 카타르 등도 이란 주재 대사를 자국으로 소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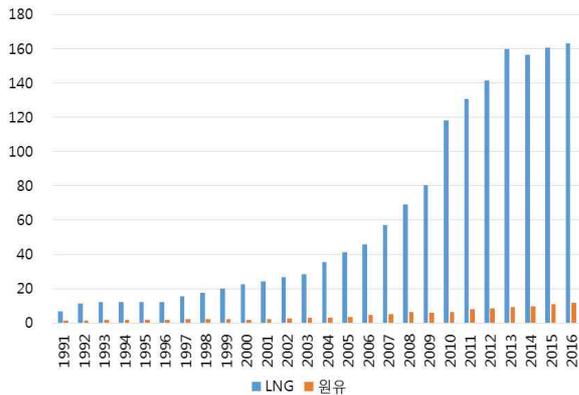
5) 석유는 원유와 NGLs(Natural Gas Liquids)를 포함함. BP(2017),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6) BP(2017),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 2014년 이후 국제유가 하락과 함께 LNG 가격도 급락하면서 2016년 기준 카타르의 GDP 성장률은 2.5%로 둔화되었으며, GDP 대비 재정수지는 -7.5%로 적자로 전환되었고 수출도 23.9% 감소하였음(그림 2 참고).⁸⁾

그림 1. 카타르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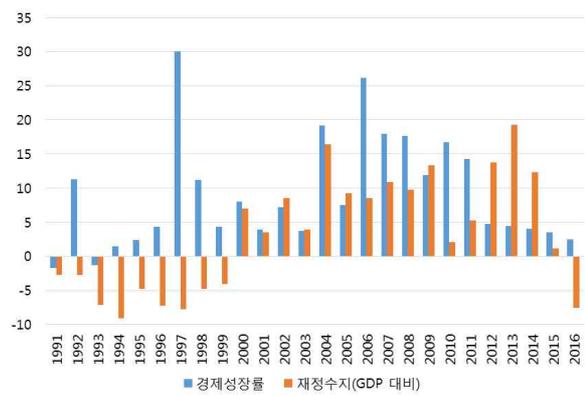
(단위: 백만 석유환산톤)



자료: BP(2017),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그림 2. 카타르의 경제성장률 및 재정수지 추이

(단위: %)



자료: IHS Markit.

나. 부문별 경제적 영향

■ [소비자물가] 카타르에 대한 단교 선언 이후 인접 국가의 카타르 국경 봉쇄조치로 수입에 차질이 발생하여 식품 및 음료 부문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였음.

- 카타르의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은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최근까지 하락세를 보이다 외교갈등이 촉발된 이후인 2017년 6월에는 전월대비 0.7%, 전년동기대비 0.8%로 상승세로 돌아섰음(그림 3 참고).
- 특히 6월의 식품 및 음료 부문이 전월대비 2.5%로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된 품목 중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음.⁹⁾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카타르 국경 봉쇄로 육로를 통한 식품 수입에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임.
 - 반면 주택 및 각종 유틸리티 요금은 전월대비 0.6%, 전년동기대비 2.9%로 각각 감소하였음.¹⁰⁾
- 이후 카타르 정부가 대체 수송로를 구축하면서 7월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은 전월대비 0.2%, 전년동기대비 0.2% 증가하는 데 그치며 안정을 찾고 있음.

■ [주가지수] 단교 선언 이후 카타르 주식시장은 약세를 보이고 있음.

- 6월 4일 9,923.6을 기록한 카타르의 주가지수는 6월 5일 주요국의 단교 선언 이후 9,202.6으로 7.3%

7) Qatar Central Bank(2016), *The Thirty Ninth Annual Report*, p. 19, p. 53, p. 153.

8) IMF(2017), *Qatar: 2016 Article IV Consultation*, p. 4.

9) Ministry of Development Planning and Statistics(2017), "Monthly Press Release on Monthly consumer price index," p. 3. (June)

10) Ministry of Development Planning and Statistics(2017), "Monthly Press Release on Monthly consumer price index," p. 3. (June)

하락하였으며, 6월 21일에는 8,777.7까지 낙폭이 확대되었음(그림 4 참고).

- 단교 선언 직후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의 GCC 기관투자자들은 카타르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도하였으나 국부펀드를 비롯한 카타르 기관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이어지면서 7월 25일 9,594.5로 회복하였음.¹¹⁾
- 그러나 이후 갈등 양상이 지속되자 카타르 주가지수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8월 30일 기준 8,839를 기록하였음.

그림 3. 카타르의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추이



자료: Ministry of Development Planning and Statistics(2017), "Monthly consumer price index," p. 7. (Ju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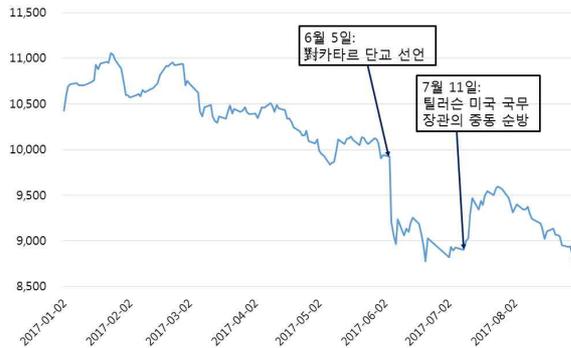
■ [환율] 카타르에 대한 단교선언 이후 카타르리얄화 선물환이 급등하였으나 최근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음.

- 카타르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주변국과 갈등도 고조되면서 해외 은행 및 환전소는 카타르리얄화에 대한 매입을 중단한 바 있음.
 - 대표적인 예로 외환 공급업체인 트레블렉스(Travellex)는 사업 리스크를 이유로 세계 주요 은행과 환전소에 카타르리얄화 공급을 일시 중단하였음.¹²⁾
- 또한 카타르의 환율 상승에 대한 투기적 거래가 증가하였고 GCC 기관투자자들도 일시에 자금을 인출하면서 6월 26일 12개월물 카타르리얄화 선물환은 2017년 1월대비 4.7% 상승한 3.84카타르리얄을 기록하였음(그림 5 참고).
- 하지만 카타르와 단교 선언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협상이 지속되었고, 주요국의 중재 노력도 이어지면서 7월 24일 기준 3.71카타르리얄로 선물환이 빠르게 안정되었음.

11) Pacheco, Filipe(2017. 7. 10), "Qatar Shares Dumped by Neighbors Get Snapped Up by Locals," Bloomberg(<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7-07-10/qatar-shares-dumped-by-neighbors-get-snapped-up-by-locals-chart>, 검색일: 2017. 8.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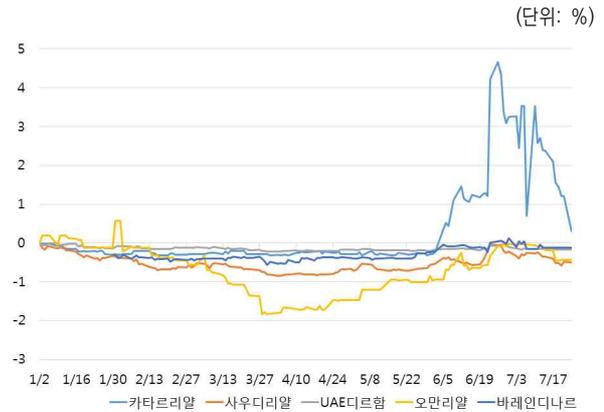
12) "Qatari riyals no longer available at many UK banks"(2017. 6. 30), BBC(<http://www.bbc.com/news/business-40454386>, 검색일: 2017. 7. 25).

그림 4. 카타르 주가지수(DSM)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5. GCC 국가별 선물환 변동 추이



주: 2017년 1월 1일을 0으로 하여 일별 변동을 표시, 12개월물 선물환 기준.
자료: Bloomberg.

■ [국가신용등급] 신용평가사들은 카타르의 경제성장 둔화 가능성을 이유로 신용등급을 낮추거나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

- S&P는 외교갈등이 카타르의 재정과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2017년 6월 7일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하고 전망도 '안정적'에서 '부정적 검토(negative watch)'로 하향 조정하였음(표 5 참고).
- 피치는 6월 12일 카타르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 검토'로 변경한 뒤 카타르와 단교 선언국 간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자 8월 28일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하고 전망도 '부정적'으로 내다봤음.
- 한편 무디스는 카타르의 신용등급을 유지하였으나 7월 5일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하였음.

표 5. 對카타르 단교 선언 전·후 주요 신용평가사의 장기 신용등급 변경 내용

신용평가사	사태 전			사태 후		
	등급	전망	변경일	등급	전망	변경일
S&P	AA	부정적	2017년 3월 3일	AA-	부정적 검토	2017년 6월 7일
피치(Fitch)	AA	안정적	2015년 3월 6일	AA-	부정적	2017년 8월 28일
무디스(Moody's)	Aa3	안정적	2017년 5월 26일	Aa3	부정적	2017년 7월 5일

자료: Bloomberg.

■ [수출] 단교 선언 이후 카타르의 최대 수출품인 LNG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며, 다른 수출품도 대체 수송로를 마련하여 큰 타격은 없는 것으로 보임.

- 2017년 6월 카타르의 수출은 183.7억 카타르리얄(약 50억 달러)로, 전월대비로는 9.5% 감소하였으나 전년동기대비는 5.4% 증가하였음.13)14)

13) Petronet, 국제석유정보, 국제석유가격, 일일국제원유가격(<http://www.petronet.co.kr/main2.jsp>, 검색일: 2017. 8.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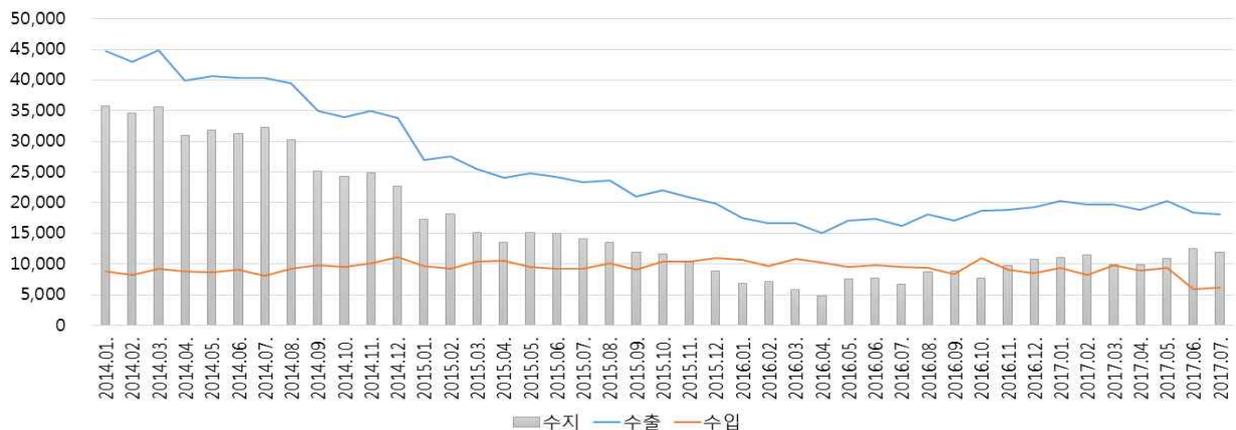
- 카타르의 전월대비 감소한 수출액은 총 19.2억 달러였으며, 감소 금액 중 석유 및 석유제품의 비중이 54.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6월 수출 감소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한 데 따른 영향으로 해석됨.
- 카타르의 총수출 중 LNG(46.7%)와 원유(12.9%)가 5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일본, 한국, 인도 등 아시아 지역으로 향하고 있음.¹⁵⁾
- 카타르에 대한 단교 선언 이후에도 LNG와 원유 수출로 활용되는 호르무즈해협과 수에즈 운하에 대한 별다른 조치는 없는 것으로 보임.
- 2017년 5월 카타르로 유입되는 LNG 선박량은 5월 119만 DWT(Deadweight tonnage)에서 6월 266만 DWT로 오히려 증가하였음.¹⁶⁾

■ [수입] 카타르의 수입은 각종 수송료 봉쇄로 인해 일시적으로 급감하였으나, 카타르 정부가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여 각종 대체 수입로를 마련하면서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됨.

- 카타르의 2017년 6월 수입 규모는 58.7억 카타르리얄(약 16.1억 달러)로, 전월대비 37.9%, 전년동기대비 40.0% 급감하였음(그림 6 참고).
- 카타르의 최대 수입국은 미국, 중국, UAE 등이며, 주로 차량, 항공기, 전화기 및 부품류를 수입하고 있음.¹⁷⁾
- 이 중 카타르의 對미국, 對중국, 對UAE 수입은 전월대비 각각 36.4%, 40.0%, 48.0% 감소하였음.¹⁸⁾
- 카타르 식품 수입의 약 40%가 육로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단교 이후 일시적인 혼란이 있었음.
- 그러나 카타르 정부가 터키, 이란, 모로코 등으로부터 각종 곡물, 과일 및 채소 등을 조달하면서 2017년 7월 카타르의 수입은 62.4억 달러로 전월대비 6.3% 증가하며 회복세로 돌아섰음.

그림 6. 카타르의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카타르리얄)



자료: Bloomberg.

14) 2017년 7월 카타르의 수출은 전월대비 소폭(1.2%) 하락한 181.5억 카타르리얄을 기록하였음.

15) IMF(2017), *Qatar: 2016 Article IV Consultation*, p. 25.

16) Bloomberg. 재화중량톤수(Deadweight tonnage)는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최대량을 달성할 경우의 중량을 의미함.

17) Ministry of Development Planning and Statistics(2017), *Qatar Monthly Statistics*, pp. 26-27. (June)

18) Ministry of Development Planning and Statistics(2017), *Monthly Press Release on Foreign Merchandise Trade Statistics*, p. 5. (June)

■ [투자] 카타르는 외교갈등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천연가스 부문에 대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더욱 공격적인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음.

- 카타르 국영석유기업인 QP(Qatar Petroleum)는 지난 4월 2005년 이후 12년간 개발유예조치를 해온 북부 가스전에 대한 개발을 재개하여 2Bcf/d를 추가 생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7월 4일에는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많은 4Bcf/d로 추가 생산량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¹⁹⁾
- QP는 6월 13일 로열더치셸과 북부 가스전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으며,²⁰⁾ 7월 11일에는 프랑스 석유기업인 토탈과 알 샤힌(Al Shaheen) 해상 유전을 25년간 개발하기 위해 합작투자기업인 노스오일(North Oil)을 70대 30의 비율로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²¹⁾

■ [은행] 단교 선언 이후 카타르 상업은행의 비거주자 및 민간 부문 자금 유출이 증가하자 카타르 정부는 상업은행의 유동성 부족과 관련된 문제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자금을 투입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UAE를 비롯한 카타르와 단교를 선언한 국적의 거주자 및 기업이 카타르 상업은행에서 예금을 대거 인출하자 카타르 정부는 국부펀드인 카타르 투자청(QIA: Qatar Investment Authority)의 자금 지원을 통해 자국 상업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였음.²²⁾
- 카타르 상업은행의 6월 총 예금 규모는 7,707.0억 카타르리얌(약 2,105.5억 달러)로, 전월대비 1.1%, 전년동기대비 12.7% 증가하였음(그림 7 참고).
- 이것은 민간 부문과 비거주자의 6월 예금 규모가 전월대비 각각 5.2%, 7.6% 감소한 반면, 공공 부문이 21.0%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임.
- 카타르 상업은행의 대외자산보다 대외부채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2015년 5월 -101.8억 달러였던 대외순자산은 2017년 5월 -556.4억 달러로 1년 사이에 약 5.5배로 늘어났음(그림 8 참고).

■ [항공 및 물류] 카타르는 단교국의 항로, 육로 및 항만 사용이 금지되자 대체 수송로를 개발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단교국의 영공 진입이 막히자 이란, 터키, 오만 등의 우회 항로를 이용하면서 카타르 항공의 항로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음.
- 그러나 외교갈등의 장기화는 기존 항공로의 대체에 따른 시간 및 비용 증가를 야기하여 카타르 항공의 수익 감소로 연결될 수 있음.

19) Mirza, Adal(2017. 7. 4), "Qatar to raise LNG production by 30% to 100 million mt/year by 2024: QP CEO," Platts (<https://www.platts.com/latest-news/natural-gas/dubai/qatar-to-raise-lng-production-by-30-to-100-million-27853035>, 검색일: 2017. 7. 28).

20) "Qatar Petroleum and Shell Form LNG Marine fueling venture"(2017. 6. 13), Shell Global(<http://www.shell.com/media/news-and-media-releases/2017/qatar-petroleum-shell-form-lng-marine-fueling-venture.html>, 검색일: 2017. 8.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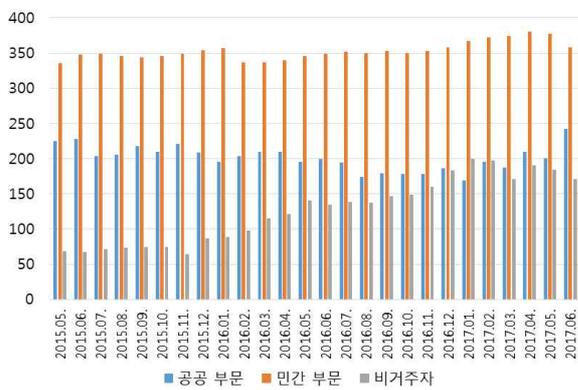
21) "UPDATE 1-Total to invest \$3.5 bln over five years in Qatari field"(2017. 7. 12), Reuter(<http://af.reuters.com/article/commoditiesNews/idAFL8N1K24GE>, 검색일: 2017. 8. 4).

22) Sergie, Mohammed, Archana Narayanan, and Dinesh Nair(2017. 6. 20), "Qatar Wealth Fund to Inject Dollar Deposits in Local Bank." Bloomberg(<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7-06-19/qatar-wealth-fund-said-to-inject-dollar-deposits-in-local-banks>, 검색일: 2017. 8. 3).

- 카타르 정부는 하마드 항의 활용률을 높이는 한편 기존에 이용하던 UAE의 항을 대신하여 오만의 주요 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UAE의 푸자이라(Fujairah) 항은 세계 3대 재급유 항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선박의 주요 급유지이나 단교 이후 카타르 국적 선박의 정박을 금지하였으며, 제벨알리 항도 카타르 선박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 반면 중립적 외교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오만은 살라라(Salalah) 항, 소하르(Sohar) 항에서 카타르를 오가는 선박의 선적, 재급유 등을 허락하고 있어 카타르 교역을 위한 대체 항으로 부상하고 있음.²³⁾

그림 7. 카타르의 상업은행 예금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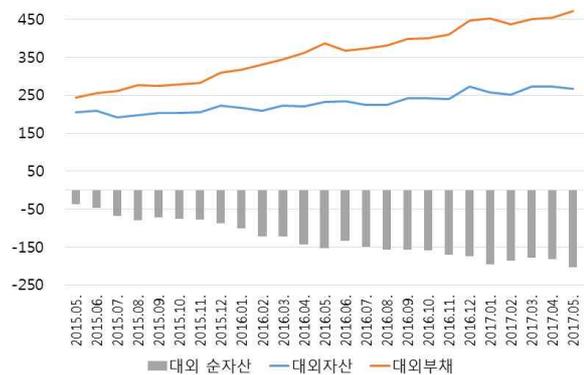
(단위: 십억 카타르리알)



자료: Ministry of Development Planning and Statistics(2017), Qatar Monthly Statistics, p. 31. (June)

그림 8. 카타르 상업은행의 대외 자산 및 부채 추이

(단위: 십억 카타르리알)



자료: Qatar Central Bank(2017. 5), Monthly Monetary Bulletin (검색일: 2017. 8. 3).

다. 장기화에 따른 주요 리스크 요인

■ 카타르의 LNG 및 원유가 수출되는 호르무즈 해협이나 수에즈 운하의 봉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됨.

- 카타르의 LNG 선박이 드나드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이란과 오만은 카타르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이집트도 자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했을 때 수에즈 운하에 카타르 선박의 출입을 막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됨.

■ 외교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성장 둔화, 재정수지 악화 등 카타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 외교갈등의 장기화는 외국인 자본 유출, 단교국과의 투자 및 교역 중단에 따른 각종 비용 상승 등으로 카타르의 경기를 둔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 외교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수입대체를 위한 각종 비용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기존 예상보다

23) EIU(2017), Country Report, p. 37. (June)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카타르 정부는 외교갈등이 자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외환 및 금융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대체 수송로 사용에 따른 기업의 비용 증가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 재정을 사용하고 있어 사태의 장기화는 결국 정부 재정수지 악화로 연결될 수 있음.

■ 그러나 카타르는 막대한 규모의 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외교갈등이 장기화되더라도 경제위기 수준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3월 기준 카타르의 외화 보유액은 335억 달러(2016년 카타르 GDP의 21.9%)로, 이는 향후 11.1개월간의 수입결제를 소화할 수 있는 규모임.²⁴⁾
- 카타르는 국부펀드의 형태로도 약 3,200억 달러(2016년 카타르 GDP의 209.8%)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음.²⁵⁾
- 카타르 중앙은행 총재인 압둘라 빈 사우드(Abdullah bin Saud al-Thani)는 단교 선언 이후 어떤 종류의 경제적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국부펀드 및 외화 보유액을 즉각 유동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²⁶⁾
 - 향후 카타르리얄화에 대한 추가 매도 압력이 커지더라도 카타르 정부는 외화자산을 기반으로 달러 페그제를 유지해나갈 것으로 보임.²⁷⁾
 - 그러나 카타르 국부펀드인 QIA(Qatar Investment Authority)는 부동산, 해외 인프라 등에 투자하여 단기간 내에 유동화하기 힘든 자산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유동화 가능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있음.²⁸⁾

■ 외교갈등의 장기화는 카타르 상업은행 부문의 유동성 제약을 야기할 수 있음.

- 카타르 상업은행 부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유가로 정부 재정 수입이 감소하면서 비거주자 예금을 통해 각종 인프라에 대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향후 비거주자의 자금 인출이 지속된다면 이는 카타르 상업은행의 유동성을 축소시킬 수 있음.
 - 카타르 은행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강점으로 GCC 지역 외국인의 예금을 늘려왔으며, 그 결과 총 예금액 중 비거주자 비중은 2015년 5월 기준 10.9%에서 2017년 5월 24.2%로 증가하였음.²⁹⁾
- 또한 향후 상업은행 유동성 위축은 은행의 대외자산 감소, 외화차입에 대한 만기연장(rollover)의 어려움으로 연결되어 카타르 상업은행 신용도의 추가하락을 초래할 수 있음.³⁰⁾

24) Oxford Economics, Global Economic Databank(<https://services.oxfordeconomics.com/data/>, 검색일: 2017. 8. 3).

25) Sovereign Wealth Fund Institute, Fund Rankings(<http://www.swfinstitute.org/sovereign-wealth-fund-rankings/>, 검색일: 2017. 8. 14).

26) EIU(2017), *Country Report*, p. 22. (July)

27) Torchia, Andrew, Tom Arnold and Stanley Carvalho(2017. 6. 28), "Qatar riyal FX market in chaos but bankers believe peg still solid," Reuters(<https://www.reuters.com/article/uk-gulf-qatar-currency-idUSKBN19J1C7>, 검색일: 2017. 7. 25).

28) 김예경, 송기중, 이세찬(2017), 「“카타르 단교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반영하여 관련 유동화증권을 하향검토(↓) 감시대상에 등재」, *Market Comment*, p. 8, NICE신용평가.

29) Qatar Central Bank(2017. 5), *Monthly Monetary Bulletin*(<http://www.qcb.gov.qa/English/Publications/Statistics/Pages/MonthlyBulletin.aspx>, 검색일: 2017. 8. 3).

30) 김예경, 송기중, 이세찬(2017), 「“카타르 단교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반영하여 관련 유동화증권을 하향검토(↓) 감시대상에 등재」, *Market*

- 다만 카타르 정부는 상업은행의 유동성을 공급할 막대한 규모의 국부펀드를 보유하고 있어 위기 시 충분한 대응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건설 부문의 비용 및 공사 기간 증가가 건설 투자 부진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카타르의 장기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각종 건설 기자재 수입 자체가 어려워지기보다는 수입 시 물류비용 및 수입 기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진행 중인 인프라 프로젝트의 건설비용 증가로 연결될 수 있음.³¹⁾
- 건설 투자는 향후 카타르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할 부문으로, 외교갈등의 장기화로 월드컵 관련 건설의 차질이 발생하거나 석유 및 가스 의존적 경제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산업다각화와 관련된 인프라 건설이 늦춰질 경우 장기 경제성장을 둔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음.

3. 한·카타르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 및 리스크 요인

가. 한·카타르 경제협력관계 개요

■ 한국의 대카타르 교역은 지속적 무역적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광물성 연료가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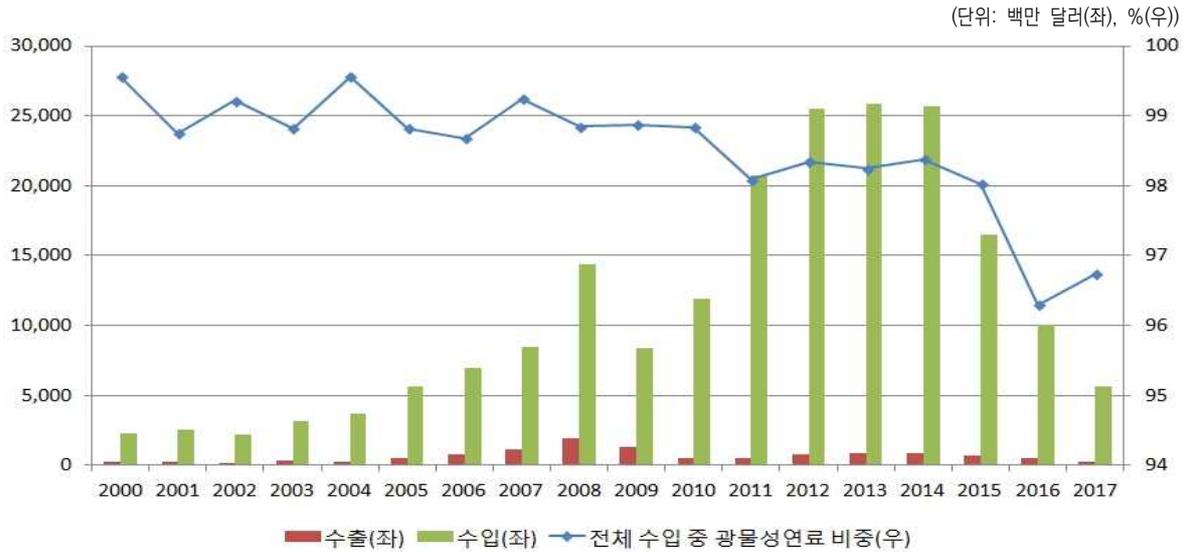
- 2016년 기준 대카타르 수입 규모는 100억 8,100만 달러로 카타르는 한국의 제9위 수입국이었으나, 수출 규모는 5억 3,600만 달러로 수입에 비해 미미한 수준을 기록함.³²⁾
- 2016년 대카타르 광물성 연료 수입 규모는 97억 700만 달러로 전체 수입의 약 96.3%에 달했으며, 광물성 연료 중 천연가스 수입액이 43억 9,500만 달러로 가장 많은 부문을 차지하였고, 원유가 38억 7,600만 달러로 그 뒤를 이음.

Comment, p. 8, NICE신용평가.

31) Torchia, Andrew(2017. 7. 20), "Diplomatic crisis triggers only minor Qatar economic forecast cuts: Reuters Poll," Reuters(<http://www.reuters.com/article/us-gulf-economy-poll-idUSKBN1A516M>, 검색일: 2017. 7. 26).

32) 한국무역협회(2017), 무역통계(<http://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 검색일: 2017. 8. 10).

그림 9. 한국의 대카타르 교역 추이



주: 2017년은 6월까지의 수치임.

자료: 한국무역협회(2017), 무역통계(<http://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 검색일: 2017. 8. 10).

■ 카타르는 2022년 월드컵 준비로 도로, 철도, 전력, 호텔 등 대규모 인프라 및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기업은 카타르 프로젝트 시장에 활발히 진출해왔음.

- 2017년 6월 기준 카타르 내 건설 및 플랜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기업은 17개 사로, 사업 규모는 약 11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³³⁾
- 한국의 대카타르 건설 수주 규모는 2015년 21억 3,223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6년 4억 6,689만 달러로 큰 폭으로 하락함.³⁴⁾
- 한국의 대카타르 건설 수주는 2008년 44억 44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수주액은 18억 4,378만 달러에 달함.

■ 한국의 대카타르 투자는 쿠웨이트를 제외한 다른 GCC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주로 건설업에 집중되어 있음.³⁵⁾

- 2017년 3월까지 한국의 대GCC 누계 투자 규모는 62억 4,317만 달러로 이 중 사우디아라비아가 39억 2,652만 달러로 6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UAE, 오만, 바레인, 카타르 순을 보임.
- 대카타르 누계 투자는 6,824만 2,000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 중 건설업 부문 투자액은 5,174만 8,000달러로 75.8%를 차지함.
- 2016년 투자액은 152만 2,000달러로 전년대비 약 7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건설업 부문 투자 금액이 급감한 것에서 기인함.

33)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7. 6. 13), 「중동 8개국 카타르 단교 조치 이후, 건설현장 대응 현황」.

34)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2017), 건설통계(http://www.icak.or.kr/sta/sta_1401.php, 검색일: 2017. 8. 13).

35)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7), 해외투자통계(<http://stats.koreaexim.go.kr/odisas.html>, 검색일: 2017. 7. 28).

표 6. 카타르 내 주요 프로젝트 현황

(단위: 억 달러)

업체	공사명	발주처	계약금액	공사기간
GS건설	도하 메트로 레드라인 남부구간(지하)	카타르 철도공사	5.1	2013/06/13~ 2018/06/30
SK건설	도하 메트로 레드라인 건설 프로젝트	카타르 철도공사	9.6	2013/06/13~ 2018/03/31
대우건설	오비탈 고속도로 및 트럭 루트 신설 공사	공공사업청	9.2	2014/06/15~ 2017/06/10
	E-Ring Road 남북연결 구간 공사	공공사업청	6.2	2017/02/15~ 2020/08/14
롯데건설	메트로 Red Line North 구간 고가 및 지상 구간	카타르 철도공사	1.2	2014/12/28~ 2018/06/30
삼성물산	Facility D IWPP	카타르 수전력회사	17.9	2015/05/13~ 2018/06/23
	루사일 개발 5B(도로 및 인프라)	루사일부동산개발회사	3.6	2012/01/15~ 2014/07/14
	루사일 개발 CP-3A(교량)	루사일부동산개발회사	1.5	2011/11/15~ 2013/11/13
현대건설	하마드 메디컬 시티 2단계 - Hospital Fit-Out 공사	공공사업청	10.0	2011/02/01~ 2013/12/04
	도하 신항만 - 운하 굴착, 안벽, 준설	New Doha Port 조정위원회	2.7	2013/08/25~ 2016/02/10
	루사일 고속도로 공사 패키지 1번	공공사업청	13.4	2012/05/21~ 2017/12/28
	무쉐이렘, 하트 오브 도하 복합개발공사 - 1A 단계	도하랜드사	3.4	2010/04/14~ 2012/07/13
	국립박물관 신축공사	Qatar Petroleum(QP)	5.0	2011/10/30~ 2016/12/14
현대로템	Al Dhakhira 하수처리장 및 관로공사	공공사업청	3.2	2014/12/03~ 2018/06/05
현대중공업	Flow Assurance Project - 해저파이프라인 공사	Ras Gas Co., Ltd	1.7	2013/08/06~ 2015/11/05
효성	전력 변전시스템 확장 공사 Phase10 - Stage 2	카타르 수전력공사	2.1	2011/10/20~ 2014/01/19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7. 6. 13), 「중동 8개국 카타르 단교 조치 이후, 건설현장 대응 현황」.

나. 부문별 경제적 영향

■ 카타르는 한국의 주요 천연가스 수입국으로 이번 외교갈등에 따른 에너지 공급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현재의 계약 방식, 수입 경로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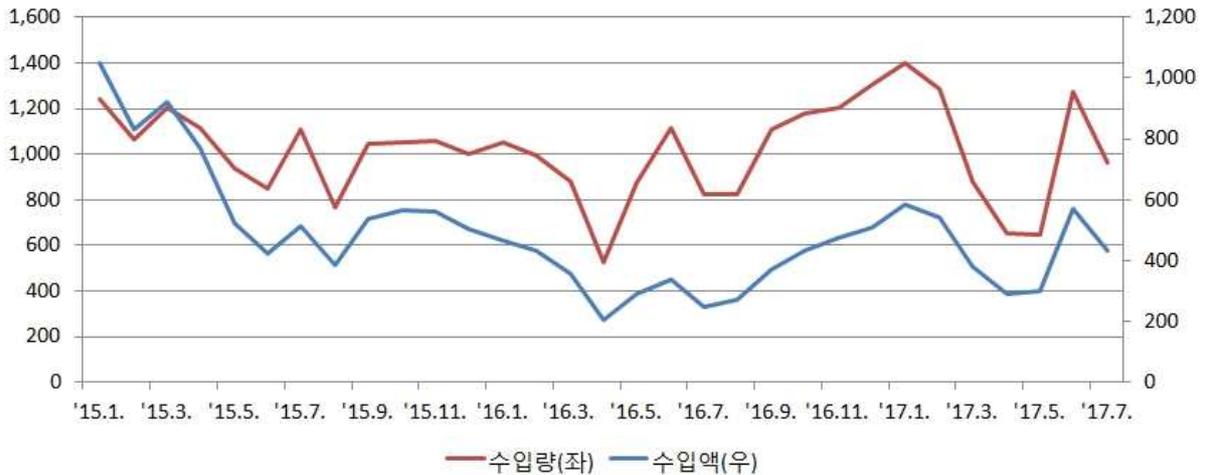
- 한국은 한국가스공사가 카타르와 장기계약을 통해 LNG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번 사태가 단기적으로 수입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2015년 기준 한국가스공사는 국내 천연가스 소비 규모의 94%를 수입하였으며, SK E&S, 중부발전, 포스코 등 민간업체가 자체 소비용으로 소규모를 수입함.³⁶⁾

36) 이창훈(2016. 5. 16), 「정부, 가스공독점 '허물기'...민간기업 LNG 수입 확대되나」, 『에너지경제』(<http://www.ekn.kr/news/article.html>)

- 카타르로부터의 LNG 수입은 선박을 통해 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입에 호르무즈 해협이 이용되고 있음.

그림 10. 한국의 대카타르 월별 천연가스 수입 추이

(단위: 천 톤(좌), 백만 달러(우))



자료: 한국무역협회(2017), 무역통계(<http://stat.kita.net/stat/kts/ctr/CtrlItemImpExpList.screen>, 검색일: 2017. 8. 18).

■ 2017년 4월 카타르는 북부 가스전 개발 재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외교갈등 사태가 촉발된 이후 천연가스 증산 계획을 밝히면서 에너지 부문에서 한국기업의 진출 기회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³⁷⁾

- 카타르 가스 프로젝트 재개 및 생산 확대로 LNG 플랜트 프로젝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기업의 플랜트 건설 참여, 플랜트 기자재 공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카타르의 천연가스 증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은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카타르 리스크 확대로 구매자 측 협상력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³⁸⁾
 - 일본의 경우 이번 사태 이후 카타르와의 LNG 계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불공정 조항의 개선 등 향후 더욱 유연한 계약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됨.³⁹⁾
 - 한국, 일본 등과 같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은 카타르 등 LNG 수출국과의 계약에서 수입한 LNG의 제3국 수출 금지와 같은 불합리한 조건을 받아들여왔음.

no=217903, 검색일: 2017. 8. 15).

37) Finn, Tom(2017. 4. 3), "Qatar restarts development of world's biggest gas field after 12-year freeze," Reuters(<http://www.reuters.com/article/us-qatar-gas-idUSKBN175181>, 검색일: 2017. 8. 10); "Qatar to increase gas production by 30 percent"(2017. 7. 5), Al Jazeera(<http://www.aljazeera.com/news/2017/07/qatar-gas-production-170704063338148.html>, 검색일: 2017. 8. 10).

38) 고재연(2017. 7. 7), 「천연가스 증산 경쟁...미국 셰일가스 수입 확대...호재 많은 LNG업계, 가격협상서 어깨 힘준다」, 『한국경제』(<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70604291>, 검색일: 2017. 8. 14).

39) 김은영(2017. 6. 13), 「카타르 단교 사태, LNG 시장에도 영향...스팟시장 활성화 촉진」, 『아시아투데이』(<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613010007185>, 검색일: 2017. 8. 15); 강광우(2017. 8. 2), 「공정위, LNG 수출국 갑질 제동건다」, 『서울경제』(<http://www.sedaily.com/NewsView/10JLG2BL45>, 검색일: 2017. 8. 15).

- 천연가스에 이어 카타르로부터의 주요 수입물품인 원유, 석유제품 등의 수입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가운데 이를 주로 수입하는 정유·화학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단기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원유 수입은 이란산 원유 및 콘덴세이트 수입이 증가하며 카타르산 수입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며, 현재 국내 유조선에 이용한 카타르산 원유 도입도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⁴⁰⁾
 - 2016년 이란산 원유 수입액은 45억 4,7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06% 증가하며 대카타르 수입액을 넘어섰으며 2017년 6월까지 이란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액은 40억 6,1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⁴¹⁾
- 한국에서 카타르로 수출되는 물량이 많지 않아 이에 대한 영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오만 등을 통한 대체 수송로가 이용되고 있음.⁴²⁾
 - 한국은 카타르에 자동차, 전력용 기기, 건설광산기계를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UAE를 통해 카타르로 도입되던 물량은 UAE 대신 오만의 살랄라 항, 소하르 항 등을 통해 수입되고 있음.
 - 카타르로 수입되는 물류의 환적은 주로 UAE의 제벨 알리 항을 통해 이루어져왔으나 UAE가 국경을 봉쇄한 이후 제벨 알리 항에서 카타르로의 선적이 불가능한 상황임.⁴³⁾

다. 장기화에 따른 주요 리스크 요인

-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어 중동 정세 불안정이 고조되면 유가와 이와 연동된 천연가스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며, 현재의 해상운송로가 폐쇄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공급 불안정에 대비하여 도입선 다변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향후 국내 LNG 발전 비중이 확대되고 LNG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LNG 도입선 다변화 추진을 통해 카타르에 편중된 수입 비중을 조정하는 등 LNG의 안정적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대비가 필요할 것임.
- 건설 부문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등을 통한 자재 및 장비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비용 상승과 공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카타르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 중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한 육로, UAE를 통한 해상 및

40) 임광복, 정상희, 윤지영, 조지민(2017. 6. 7), 「카타르 단교 사태 국내기업도 육해공 봉쇄 장기화땀 타격」, 『파이낸셜뉴스』(<http://www.fnnews.com/news/201706071746164077>, 검색일: 2017. 8. 5).

41) 한국무역협회(2017), 무역통계(<http://stat.kita.net/stat/kts/pum/PumCtrImpExpList.screen>, 검색일: 2017. 8. 6).

42) 최성훈(2017. 7. 27), 「중동항로/ 휴가철 맞아 임시휴항으로 '숨고르기」, 『코리아쉬핑가제트』(http://www.ksg.co.kr/news/main_news_View.jsp?bbsID=news&categoryCode=search&bbsCategory=KSG&schVal=카타르&pNum=114201&backUrl=news_search, 검색일: 2017. 7. 28).

43) Saul, Jonathan(2017. 6. 7), "Maersk says unable to ship Qatar bound cargo from UAE, seeks alternatives," Reuters(<http://www.reuters.com/article/us-gulf-qatar-shipping-idUSKBN18X1YS>, 검색일: 2017. 8. 10).

항공편을 이용해 자재를 조달하는 기업들은 대체 경로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임.⁴⁴⁾

- 카타르 내 건설 자재의 90% 이상이 수입되고 있으며, 수입 자재의 대부분이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한 육로나 UAE 두바이를 통한 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⁴⁵⁾
- 또한 이번 사태의 영향으로 자재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진행 중인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외교갈등 발생 이전에 발주된 프로젝트에 입찰해 공사를 수주한 기업의 경우 상승된 비용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함.

■ 헬륨을 수입하는 반도체업계에서는 사태의 장기화로 가격 및 운송비용 상승, 수급 불안정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전 세계 헬륨 생산의 30%가 카타르에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2016년 한국의 전체 헬륨 수입 중 대카타르 헬륨 수입 비중은 32%에 달함.⁴⁶⁾
- 헬륨은 반도체 제작에 필요한 가스로 카타르산 헬륨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항구를 통해 수출되고 있어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카타르로부터의 수입 대신 미국으로 수입선이 대체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임.

■ 또한 이번 사태로 자산유동화증권(ABS), 항공기금융 등 카타르 금융투자 수익성 하락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대카타르 투자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국내 증권사들은 높은 신용등급을 보유한 카타르국립은행 정기예금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Asset Backed Short-Term Bond),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등을 발행한 바 있으며, 기관투자자를 비롯해 소매판매를 통한 투자가 이루어졌음.⁴⁷⁾
- 항공기금융 투자는 국적 항공사로 신용도가 높은 중동 지역 항공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며, 카타르의 경우 카타르항공의 여객기 매입에 국내 증권사들의 투자가 이루어짐.
- 항공기금융은 증권사가 항공기 매입에 참여하고 이를 항공사에 임대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구조로, 2017년 NH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는 각각 카타르항공이 운항하는 보잉 777기 2대 매입에 7,000만 달러, 1대 매입에 5,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함.⁴⁸⁾
- 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이집트 등이 영공을 봉쇄함에 따라 카타르항공은 대체 항로를 도입해야 하며,

44) 임광복, 정상희, 윤지영, 조지민(2017. 6. 7), 「카타르 단교 사태 국내기업도 육해공 봉쇄 장기화뎀 타격」, 『파이낸셜뉴스』(<http://www.fnnews.com/news/201706071746164077>, 검색일: 2017. 8. 5).

45) 이동희(2017. 7. 26), 「'2022년 월드컵' 카타르 고속도로 현대건설·대우건설이 책임진다」, 『뉴스1』(<http://news1.kr/articles/?3051306>, 검색일: 2017. 8. 13).

46) 노경목(2017. 7. 7), 「중동·카타르 단교에 연일 긴장하는 반도체 업계 왜?」, 『한국경제』(<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70604261>, 검색일: 2017. 8. 6).

47) 김일권(2016. 5. 24), 「카타르국립은행 정기예금 ABSTB '인기몰이」, 『더벨』(http://www.thebell.co.kr/front/free/contents/news/article_view.asp?key=201605200100037380002277, 검색일: 2017. 8. 4).

48) 민경문(2017. 6. 16), 「'카타르'에 발목잡힌 중동계 항공기금융」, 『더벨』(http://www.thebell.co.kr/front/free/contents/news/article_view.asp?key=201706140100023570001430, 검색일: 2017. 8. 4); 이경은(2017. 4. 3), 「"비행기 타고 날아볼까"...증권사, 항공기 투자에 '울인」, 『EBM』(<http://www.ebn.co.kr/news/view/885112>, 검색일: 2017. 8. 4).

이는 비용 증가 및 수익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ABS와 항공기금융 모두 카타르 정부의 높은 신용등급과 수익률 등이 장점으로 부각되었으나 향후 사태가 장기화되면 거시경제 악화, 신용도 하락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투자수익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

■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이집트 4개국 카타르와의 국경을 봉쇄하고 수출입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지역 내 물류 및 인적 이동 비용도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는 한국기업의 카타르 진출 추진을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 GCC 국가간 단교로 GCC 역내 무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GCC 지역에 진출한 기업이 역내 무관세 통관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 GCC 국가들은 관세동맹을 맺고 협정에 따라 GCC 이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공동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관세는 수입품이 GCC 역내에 처음 도착하는 통관항에서 한 번 부과됨. GCC 역내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됨.⁴⁹⁾
- 이번 사태로 국내기업이 이집트에서 생산한 제품의 대카타르 수출이 막히는 등 봉쇄조치를 취한 국가에 진출한 기업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으나, 물량이 많지 않아 피해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카타르뿐만 아니라 UAE 등 주변국에 공동 진출한 기업들은 국가간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비용 상승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임.

4.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카타르를 둘러싼 아랍권의 외교 갈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졌던 카타르 경제는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그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아랍권 국가들의 대카타르 외교 단절 발표 직후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던 소비자물가, 주가지수, 선물환 등과 같은 지표들이 한 달여가 지나면서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음.
- 카타르 수출 및 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LNG 부문에서도 특이 동향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카타르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소비재 수입도 대체 수입선을 통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전반적인 한·카타르 경제협력관계도 단기적으로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현지에 진출한 국내 건설업체들은 외교 갈등 여파로 인한 비용 상승 요인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임.

- 한·카타르 경제협력 측면에서 가장 우려스러웠던 부분은 LNG 공급의 안정성 유지 여부였는데, 아직까지

49) EIU(2015. 1. 13), Country, Qatar, Economy(<http://country.eiu.com/article.aspx?articleid=902649474&Country=Qatar&topic=Economy&subtopic=Forecast&subsubtopic=External+sector&u=1&pid=121764996&oid=121764996>, 검색일: 2017. 8. 17).

외교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카타르 내 건설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국내 건설업체들은 건설 자재 및 장비 수입의 지연 및 대체 항로 개발 등으로 비용 상승 및 공사 지연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한 이번 외교 갈등은 기본적으로 아랍권 국가들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아랍권 국가들의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향후 역내 국가간에 서로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임.

- 또한 역내 외교 갈등의 장기화는 이슬람주의 테러세력의 잔존과 함께 아랍권의 지정학적 불안요인을 심화시켜 에너지자원의 수출, 물가, 외국인투자, 경제통합 등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역내 국가간 대화가 확대될 것임.

■ 그러나 아랍권 국가들 사이에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인해 역내 외교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카타르와 같이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큰 반면 인구 및 경제규모는 작은 나라는 앞서 언급한 거시경제 및 국제금융 측면에서의 잠재적인 리스크에 취약할 수밖에 없음.

- GCC 6개국만 보더라도 이란 경제와의 연관성 정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대이란 외교관계를 설정할 수 없고, 이러한 차이는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 해제 이후 더욱 커지고 있음.
- 카타르 경제는 LNG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커서 국제유가 변동성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농업 및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수입 물가 관리가 필요함.
- 또한 카타르는 소국으로서 외국인 자본 유출, 카타르리얄화에 대한 투기적 거래 등으로 인한 리스크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이는 카타르 은행의 국제금융거래상의 불안요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

■ 정부와 카타르에 진출한 국내기업은 이러한 역내 외교갈등 장기화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파악하여 카타르 경제 및 한·카타르 경협 관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동향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카타르를 비롯한 인접 중동 국가들의 현지 공관 및 코트라, 현지 기업간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가능하도록 함.
- 외교 갈등으로 인해 해외건설사업, 에너지 수급, 물류 부문 등에서 한국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 즉각적인 정부간 대화 및 협상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 및 대화 채널을 구축하도록 함.
- 동시에 가스전 개발, 제조업 시설 확충, 물류산업 육성 등 카타르 경제구조의 개선에 필요한 새로운 협력 수요를 개발하여 한·카타르 경협을 강화하는 노력도 함께 취할 필요가 있음. KIEP